

韓國林業經營의 當面課題

최민휴 林業研究院 經營部長

지난 30여년간 애쓴 보람으로 國土綠化는 일단 成功하였으나 이를 持續적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보다 풍성하게 經濟資源化하고, 보다 快適하게 環境資源化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은 「林業經營」이 있게 하는 일이다. 林業經營이 있게 하는데는 두가지 構造的인 問題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하나는 영세한 山林所有構造를 적절한 經營單位로 묶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름이 작은 國產木材의 市場을 넓히는 일이다. 두가지 일은 山林을 가지고 있는 農民의 힘으로 解決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政府가 制度나 政策的인 手段을 동원하지 아니하고는 풀수 없다.

먼저 經營單位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山林面積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은 所有者 한사람의 平均 所有規模가 2.4ha에 불과하므로 生産期間이 몇십년에 달하는 林業生産을 持續적으로 營爲할 수 없다. 그러므로 所有와 經營을 分離하여 적어도 3천ha의 經營單位로 묶어서 近代的인 林業經營單位가 되게 해야한다. 다시말해서 면단위의 山林所有者(約 1천명 내외)들이 힘을 합쳐 林業協

同組合을 構成하는 일이 捷徑이라 생각된다. (獨逸은 약 8백 ha)

林業協同組合은 專門林業經營人の 지도 아래 5~10名 程度의 機能인 作業단을 두어 計劃적으로 造林·육림·生産·販賣 및 林道事業 등을 實施함으로써 林業生産力과 山林環境機能을 최고도로 발휘케 할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이 처음부터 수지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山林資源이 全般的으로 아직 어리고 수확기에 도달하려면 아직 몇십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참을성있게 投資하고 가꾸어나가야 한다. 가꾸는데 投資를 게을리 한다면 山林資源은 또다시 荒廢化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政府가 林業協同組合을 支援하고 온 國民이 이를 協助해야 옳을 일이다.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現行 山林組合法을 廢止하고 새로이 林業協同組合法을 제정하는 일에 國民的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研究할 만큼 했다. 結論은 林業協同組合이라 해서 問題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사유림경영을 있게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14代 國會에 林業專門家로서 거는

가장 큰 期待는 바로 가장 바람직스럽고 明實相符한 林業協同組合法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에 특별히 強調하고 싶은 점은 山林組合등 기존질서를 超越하여 냉철한 이성과 民主的이며 長期的인 眼目으로 법제화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林業協同組合法은 특정 利益集團을 위한 법이 되게할 것이 아니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零細한 山林所有 農民들의 힘을 합쳐 林業經營單位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이나라 풀뿌리 민주입업의 주춧돌이 놓여지도록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 問題는 國產木材의 市場을 넓히는 일이다. 林業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을 살피면 살필수록 한 나라의 林業이 市場經濟에 適應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어쨌든 우리 林業은 資本主義 市場經濟 체제속의 林業이므로, 木材市場이 없는 林業發展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木材市場 規模는 아닌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市場이지만 이는 아름다운 收入木材의 市場이지 國產材의 市場은 아니다.

國產材의 市場은 國土綠化를 서두르는 過程에서 30여년동안 위축돼온 결과, 시멘트·철재·플라스틱과 같은 대용품에게 市場을 다 내주고 오늘날 서까래감나무 한그루 팔아먹을 市場이 없다. 치산녹화를 앞당기

기 위한 木材 消費節約이 그동안의 山林政策 第1號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제 政府가 앞장서서 國產木材 市場을 넓히는 運動을 펴야 할 때다. 國產材는 지름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지름이 큰 收入木材와 競爭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작은 지름의 나무를 판자로 한다면 오히려 허실이 많을 것이요, 서까래처럼 둥글게 깎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 방부처리를 잘한다면 울타리용재나 운동장시설, 통나무집과 공원등 休養施設用으로 안성맞춤일 것이다.

특히 울타리용재는 아파트단지 등 集團住居地域과 學校 등 公共建物 등을 中心으로 보급한다면, 값싸고 오래가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보다 친화력이 있어 훨씬 좋을 것이다.

이와같은 國產木材의 市場을 넓히는 일, 이 또한 農民 개개인이 할수 없는 일이요, 政府가 앞장서서 해야할 構造的인 問題이므로, 過去 치산녹화과정에서 木材 消費節約과 대체재 권장으로 좁혀진 木材市場을 政府가 앞장서서 넓힐때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國土綠化만 됐을뿐 經營이 없는 이나라 林業問題를 풀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經營單位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무시장을 넓힘으로써 이나라 國土資源의 앞날에 希望을 불어넣는 일이 艱요하다고 하겠다.

심에서 푸르게 가꾸어서 올창하게